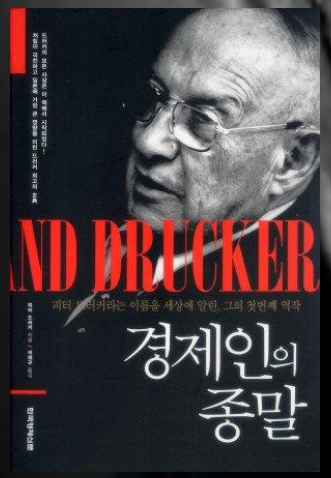
#1

피터드러커의

THE END OF ECONOMIC MAN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경제인의 종말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반(反) 파시즘 진영이 품고 있는 환상



파시즘에 대한 오해

PETER F.DRUCKER SOCIE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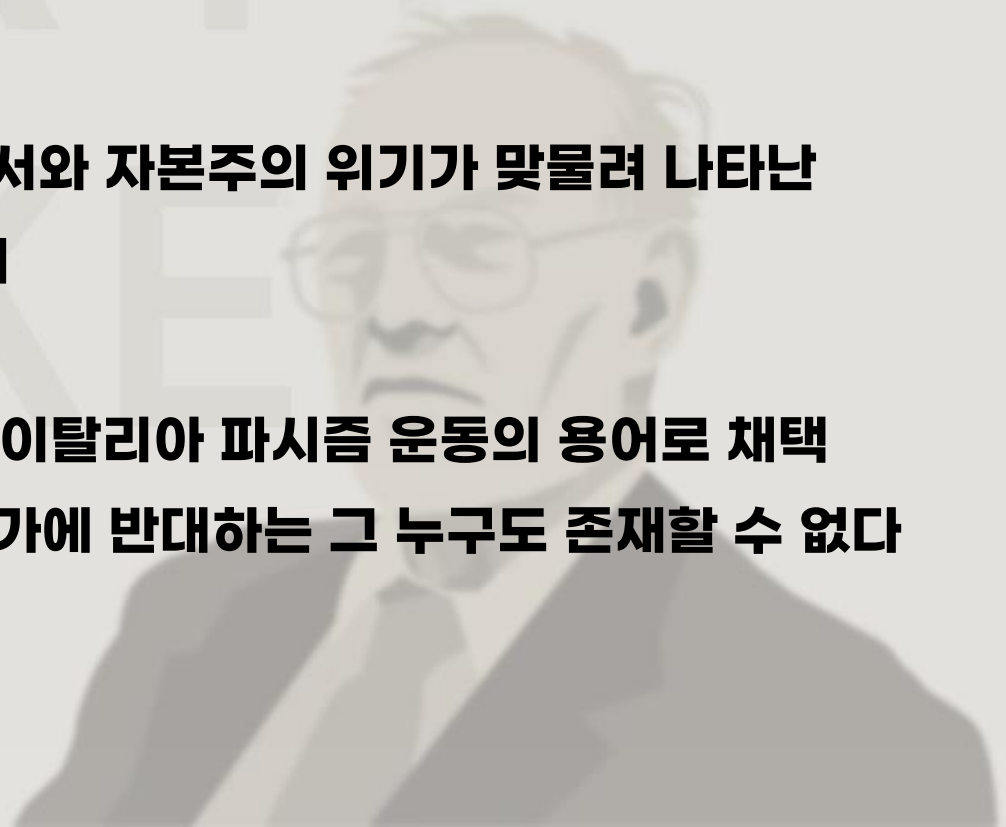
∷ 전체주의(fascist totalitarianism)의 의미와 어원

전체주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서와 자본주의 위기가 맞물려 나타난 정치적·경제적 지배 체제

=파시스트(fascist)란 도끼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1919년 이탈리아 파시즘 운동의 용어로 채택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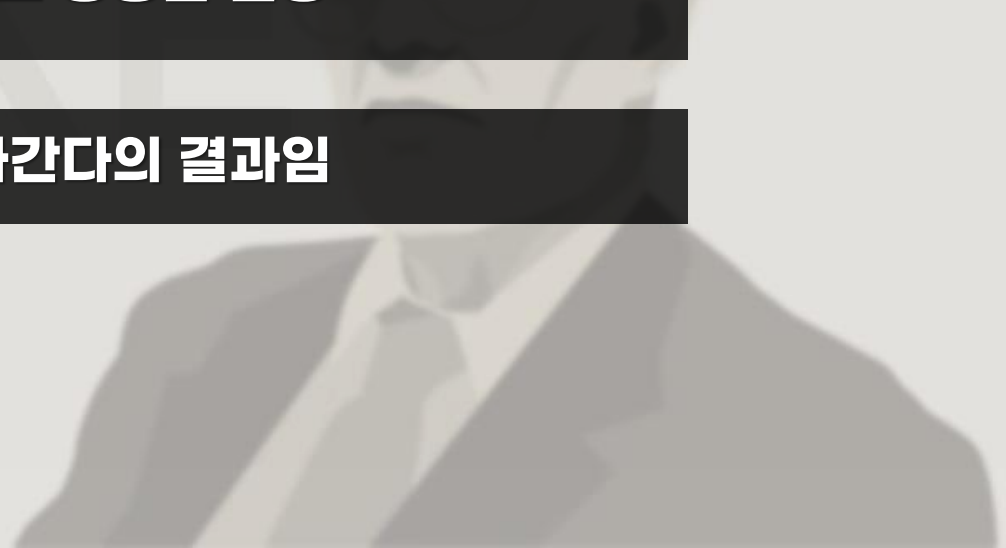
파시즘에 대한 오해

파시즘 등장의 기존 세 가설

1) 인간의 원시적인 야만성과 포악성이 나쁜 방향으로 분출된 것

2)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의 최후의 불가피한 승리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한 시도가 일시적으로 성공한 현상

3) 악랄하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프로파간다의 결과임



파시즘에 대한 오해

기존 세 가설에 대한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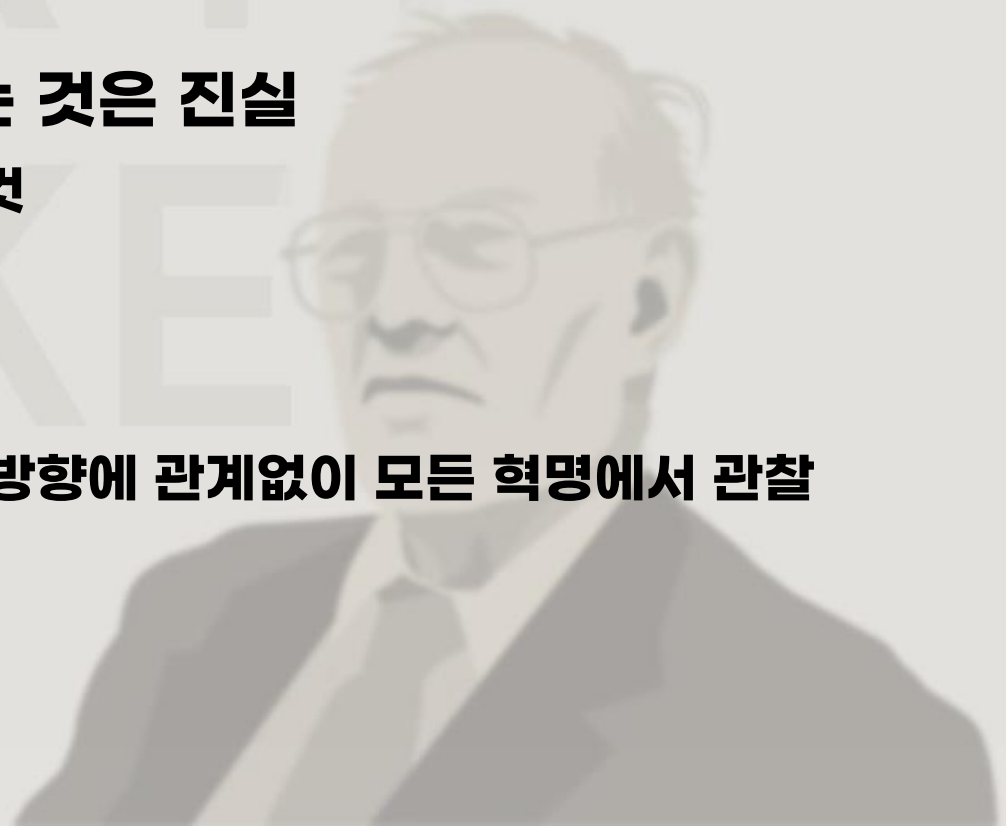
1) 인간의 원시적인 야만성과 포악성이 나쁜 방향으로 분출된 것

- 파시즘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짓밟는다는 것은 진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파시즘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

- 야만성과 잔인성은 혁명이라는 것의 증상

⇒이 증상은 혁명의 일반적 증상일 뿐으로 원인, 본질,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혁명에서 관찰



파시즘에 대한 오해

기존 세 가설에 대한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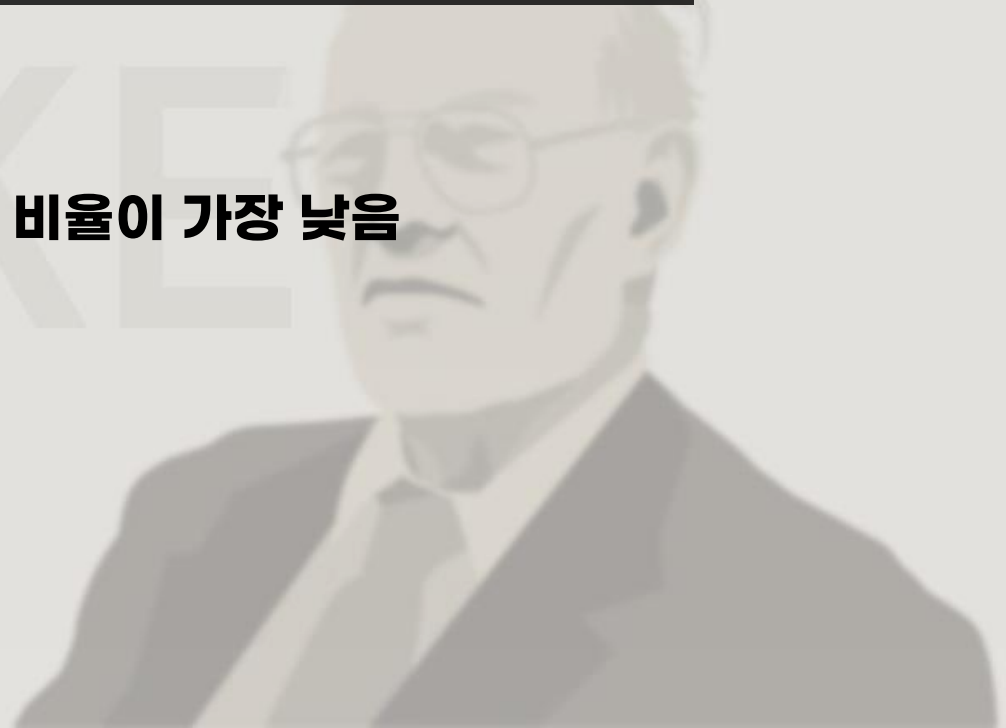
**2)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의 최후의 불가피한 승리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한 시도가 일시적으로 성공한 현상**

-대기업이 파시즘을 후원했다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 후원자 중 기업가, 은행가의 비율이 가장 낮음

-대기업이 파시즘의 이익을 본다

⇒전체주의 경제에서 대기업은 가장 핍박을 받았다.



1-1. 파시즘에 대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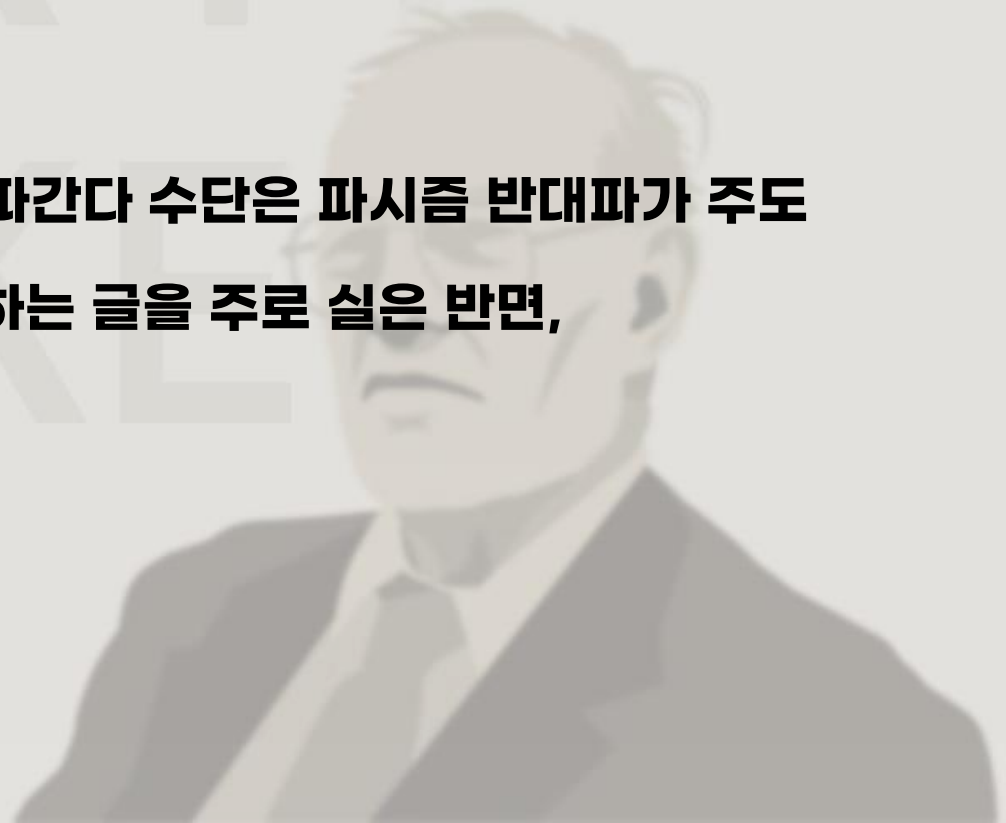
:: 기존 세 가설에 대한 반박

3) 악랄하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프로파간다의 결과임

- 파시즘은 프로파간다로 권력을 잡았다

⇒각 국에서 파시즘이 승리하기 전까지 미디어 등의 프로파간다 수단은 파시즘 반대파가 주도

⇒당시 독일,이탈리아의 대부분 신문은 전체주의를 비난하는 글을 주로 실은 반면,
지지하는 신문사는 파산 직전이었음



파시즘에 대한 오해

:: 기존 가설에 대한 종합

1) 야만성과 포악성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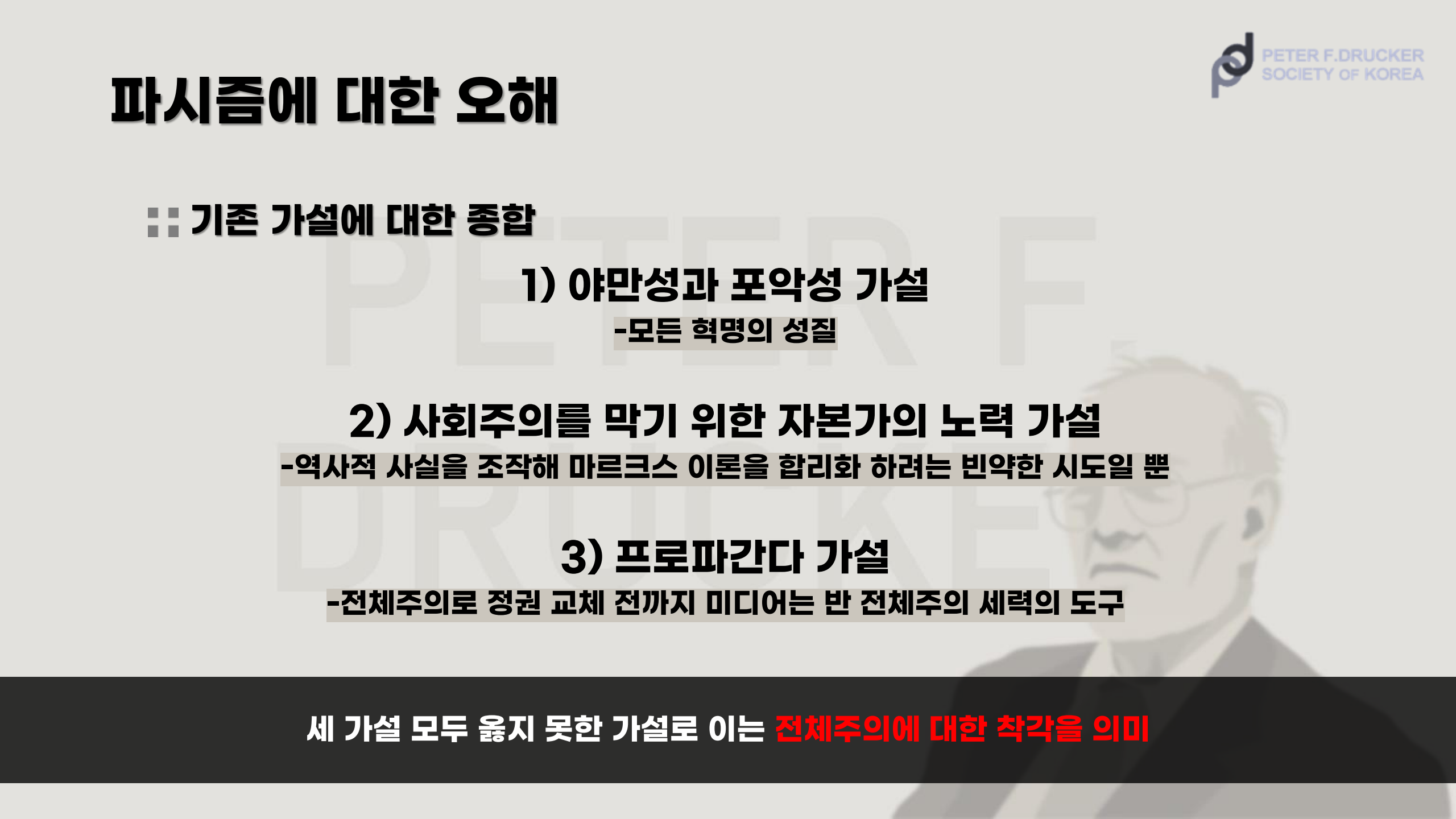
-모든 혁명의 성질

2) 사회주의를 막기 위한 자본가의 노력 가설

-역사적 사실을 조작해 마르크스 이론을 합리화 하려는 빈약한 시도일 뿐

3) 프로파간다 가설

-전체주의로 정권 교체 전까지 미디어는 반 전체주의 세력의 도구



세 가설 모두 옳지 못한 가설로 이는 **전체주의에 대한 착각을 의미**

파시즘의 여러 증상

적극적 이념의 부재



▶베니토 무솔리니

"적극적 정책도, 프로그램도 시스템도 없다"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

→생각과 이념보다 행동과 혁명이 앞선다 주장

이념의 발달로 혁명이 일어난 것과 달리 전체주의 혁명은 혁명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

→그 결과 모든 전통적 이상과 이념에 대해 반박, 투쟁, 거부하는 데 이념이 국한

파시즘의 여러 증상

기존 이념에 대한 부정

권력 아래 성립된 정치적 사회적 질서, 권위가
신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권력의 정당성 요구에 대한 부정

“권력이 그 자체로 정당성을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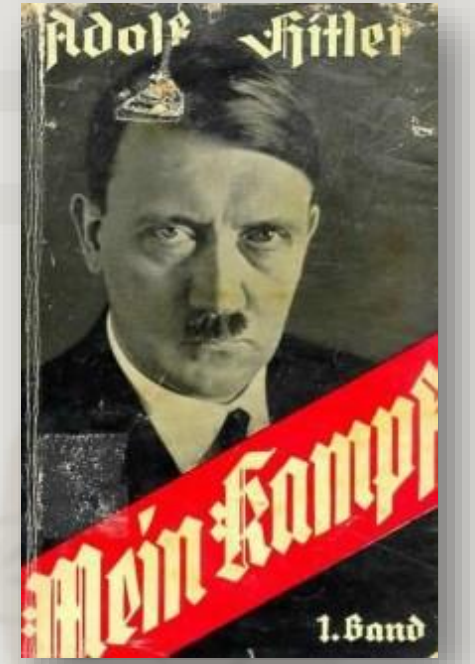
파시즘의 약속을 믿지 않아 가담한 대중

나치의 양립 불가능한 약속

- 노동자와 산업자본가 양쪽을 위한 약속 등

공공연한 거짓말

-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 “거짓말은 필요하다” 주장



뻔한 거짓말을 하는 전체주의를 왜 대중이 따랐을까?

대중은 믿지 않으면서 왜 전체주의를 지지했나

정치적·경제적 혼란

-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힘을 잃었다
- 베르사유 조약 하에 국제 정세도 아슬아슬한 상태

→후발 자본주의 국가와 패전국 독일 국민은 절망적인 상태

현실을 부정하는 기적적인 일을 기대



"나는 모순 되기 때문에 믿나이다"
(credo quia absurdum)

